

문화적 차이가 냉장고 사용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한국과 미국의 냉장고 사용 행태 비교 관찰을 중심으로 -

조운진¹, 김정하²
한동대학교¹²
purple@handong.edu¹, chiachia79@paran.com²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Culture and the Use of a Refrigerator**
-with Emphasis on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USA User Experience of a Refrigerator-

Yun Jin Cho¹, Jung Ha Kim²
Handong Global Univ.¹²

요 약

현대의 소비자는 더 이상 단순히 감성적 소구에 의해서나 기술적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다. 제품의 결정은 사용자와 제품 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정서, 인지, 행위 등에 의한 총체적인 경험에 의한 것이며, 그러한 소비자들의 경험은 지리적, 역사적 전통으로 고착된 문화적 특성이 제품을 통한 사용자 경험의 기저에서 작용함으로써 문화권 별, 국가 별로 각기 다르게 구성된다. 특별히 음식 문화는 어느 나라이든 자연 조건의 영향과 함께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독특하고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냉장고 사용에 있어서 다양한 사용행태를 구분 짓는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식품 종류에 의한 영향뿐 아니라 내부 공간 활용의 패턴, 냉장고 환경 설정에 대한 능동적인 태도, 냉장고에서 제공하는 파티션이나 옵션에 대한 수용 정도, 식품의 정리 원칙에 대한 준수 정도 등에 따른 사용행태 간의 차이점을 발견하고, 차별적 사용행태의 기저에 존재하는 문화적 요인을 분석하여 문화적 차이가 사용자의 경험에 영향을 끼치게 됨으로 인하여 냉장고 디자인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는지 그 연관성을 밝혀내고자 한다. 보다 실제적인 용도로 활용 가능하도록 냉장고 제작의 상업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냉장고 내상의 레이아웃에 중점을 두어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설문과 현장 관찰을 통해 정량적 관찰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두 국가의 문화 비교를 위한 설문은 이미 여러 연구자료에 의해 검증된 Trompenaars의 문화 변수를 바탕으로 제작 하였다. 또한 정량적 연구에서 발견될 수 없는 문화권 별 여러 특징들에 대한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정성적인 연구 방식의 일환으로 실제 관찰 및 사용자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현상의 원인 및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도록 연구를 진행하였다.

Keyword: Cross-Cultural Study, User Experience, Design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2. 이론적 배경

- 2.1 폰즈 트롬페나르의 문화이론 고찰
- 2.2 냉장고 사용행태의 Factor 분류

3. 실험 설계

- 3.1 가설 설정
- 3.2 표준 집단 선정
- 3.3 설문지 설계
- 3.4 현장 관찰 및 인터뷰 설계

4. 결과 분석

- 4.1 문화성향에 대한 분석
- 4.2 냉장고 사용행태에 대한 분석
 - 4.2.1 식품보관 패턴
 - 4.2.2 사용자의 행위 패턴
 - 4.2.3 가족원간의 공동 사용 패턴

5. 종합 결론

6.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7. 참고문헌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문화란, 인간의 모든 육체적, 정신적 인간활동의 산물을 포함하는 구체적 삶의 양식으로서 관념적 가치와 현상적 가치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사용자의 제품 사용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제 현상들은 그 이면에 문화적인 영향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데이비드 A.의 빙산모델은 인간의 무의식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빙산 모델을 통해 설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많은 문화학자들이 공감하고 있다. 제품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어지는 다양한 정서, 인지, 행위 등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화적 배경 위에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디자인 분야에서는 이러한 문화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특별히 소프트웨어나 웹사이트의 인터페이스 디자인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이는 웹이나 소프트웨어가 물리적 제약에 구애 받지 않고 많은 문화권 내에서 자유롭게 활용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더욱 문화적 요인에 대한 영향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기 때문이나 그만큼 문화적 요인에 따른 영향력의 유효기간이 짧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적 요인이 가장 두드러지며 분석에 따른 유효기간 또한 장기간일 수 있는 냉장고를 대상으로 사용행태에 따른 문화적 요인을 증명하고 그 관계를 밝혀내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한국과 미국 주부들의 냉장고 사용행태를 비교하고, 이를 문화적 요인으로 해석한다. 이는 냉장고 디자인에 있어서 문화권별 특징을 어떤 관점에서 고려해야 하는지 추후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비교 분석을 위한 자료는 설문을 이용 하였다. 냉장고 사용행태와 문화성향에 대한 두 가지 설문을 한국인 주부와 미국인 주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해당 문화성향에 대한 냉장고 사용행태의 연관성을 분석한 후 한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를 비교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폰즈 트롬페나르의 문화이론 고찰

본 연구는 트롬페나르의 문화변수를 기준으로 진행한다. 트롬페나르는 광범위한 다국적 조사를 통하여 그의 모델을 수량화시켰는데, 이 조사는 16 개의 질문을 30 개사, 50 개국의 공장가동, 판매, 마케팅을 담당하는 15,000 명의 관리자와 일반관리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트롬페나르는 흡스테드 기본개념의 한계를 지적하고, 기존의 문화변수를 통합하여 정리하였다. 트롬페나르의 문화 변수와 실험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Hampden-turner & Trompenaars, 2000)

첫째, 보편주의 대 정황주의의 차원이다. 보편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문화는 사회의 규칙과 규범이 보편적으로 지배하며 거기에 순응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문화를 의미한다. 규칙 아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편주의는 평등을 암시한다. 정황주의 문화는 ‘보편적 시민’보다는 내 친구, 형제, 자매 혹은 나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중요시 하는 경향이 많다. 이런 점에서 정황주의는 온정주의 성향이 다분히 지배적인 문화이며 포용보다는 구분을 중시하는 문화이다. 미국, 독일, 스위스 등 북미와 대부분의 북유럽인들이 완전한 보편주의적 성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표준화된 규범과 규칙에 우선적으로 대응하며 보편적 기업문화를 중요시한다. 이에 반해, 프랑스, 러시아, 대부분의 아시아인들은 보편주의 문화의 유입에 민감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며 현지화된 토착문화의 고수와 소위 글로벌 문화의 수용에 대해 갈등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의 차원이다. 이 차원은 개인과 집단을 중시하는 정도나 경향을 나타낸다. 북미나 미국은 강력한 개인주의이나 환태평양 아시아국가와 함께 독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등 카톨릭 문명이 성장한 지역에서는 개인주의 성향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집단 중심의 공동체 성향에서 개인주의적 성향이 점

차 증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서구 문화의 유입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셋째, 중립적 대 감정적에 대한 차원이다. 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성과 감정이 지배하는 역할의 정도에 의해 평가된다. 중립적인 문화의 사람들은 감정을 보이지 않고 주의 깊게 절제하며 통제시킨다. 반면 매우 감정적인 문화에서는 웃음과 미소, 비웃음, 제스처 등을 통해 감정을 솔직히 노출시킨다. 문화적 특성이 감정적인 경우 직접적인 반응을 추구하고, 중립적인 경우 간접적인 반응을 추구한다. 이디오피아와 일본이 중립적인 성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페인, 이태리, 프랑스가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넷째, 특정적 대 확산적에 대한 차원이다. 이 차원은 인간관계에서나 삶의 영역에서 관계의 수준을 한가지로 하느냐 아니면 동시에 여러 수준으로 분산하느냐를 의미한다. 한정주의란 개인적 삶과 공적 의무를 구분하는 성향이며 분산주의는 이를 구분하지 않는 성향을 말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 독일, 한국 등에서 대학교수는 학교에서건 일상생활에서건 언제나 대학교수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타이틀은 특정 위치에 있는 특정 직업을 위한 특정 수준일 뿐 일상 생활로 돌아가면 같은 시민일 뿐이다.

다섯째, 동시적(장기지향)인가에 대한 차원이다. 이는 과거, 현재, 미래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에 대한 차원이다. 과거, 현재, 미래를 얼마나 명확히 구분 짓는가에 따라 시간 인식이 연속적인지 혹은 동시적인지를 측정할 수 있다.

여섯째, 성취주의 대 귀속주의에 대한 차원이다. 어떤 사회는 그들의 개인적 노력에 의한 성취 정도를 근거로 지위를 부여하는 반면, 어떤 사회는 연령, 계층, 성, 교육 정도 등을 기초로 해서 지위를 귀속시킨다. 영어권과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성취지향적이고, 동유럽과 남미, 아시아 국가들은 귀속지향적이다.

2.2 냉장고 사용 행태의 Factor 분류

냉장고 사용자 12 명을 대상으로 1 차 관찰하여 냉장고 사용행태에 대한 주요 factor 를 추출하여 크게 세가지 프레임워크로 정리하였다. 첫째는 식품 보관 패턴, 둘째는 사용자의 행위 패턴, 마지막으로 가족원 간의 공동 소유 패턴 등으로 분류된다. 식품 보관 패턴은 식품의 위치를 결정하는 기준, 보관 용기를 선택하는 기준, 보관의 환경을 조절 여부 등으로 살펴봄, 사용자의 행위 패턴은 찾는 행위, 넣는 행위, 꺼내는 행위의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본다. 가족원 간의 공동 소유 패턴은 구성원 별 사용빈도와 각각 주로 이용하는 칸의 유무 등으로 파악한다.

[표 1] 냉장고 사용행태의 factor에 대한 분류

사용 행태 분류	세부 분류
식품 보관 패턴	① 식품의 위치를 결정하는 기준
	② 보관 용기를 선택하는 기준
	③ 보관의 환경을 조절 여부
사용자의 행위 패턴	① 찾는 행위
	② 넣는 행위
	③ 꺼내는 행위
가족원 간의 공동 사용 패턴	① 구성원 별 사용빈도
	② 주로 이용하는 칸의 유무

각 요소는 한국과 미국 사용자의 냉장고 사용패턴 측정을 위한 설문 디자인의 근간으로 활용하였다.

3. 실험 설계

3.1 가설 설정

기어 흡스테드의 이론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문화는 그 속성상 매우 다른 문화권에 속해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권의 차이가 냉장고 사용 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운다. 각 가설은 설문과 인터뷰 및 관찰에 의한 실험을 통해 증명한다.

- 가설 1: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
- 가설 2: 한국과 미국의 냉장고 사용 행태는 다르게 나타난다.
- 가설 3: 문화적 차이가 냉장고 사용 행태에 영향을 준다

3.2 표준집단 선정

실험의 외부변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한국과 미국 주부들에 대하여 동일 demographic 기준으로 표준집단을 선정하였다. 연령대는 30대에서 50 대로 결혼 이후 주부생활에 대한 나름의 노하우 및 패턴이 형성이 되었으며, 시대 흐름에 어느 정도의 민감도를 지니고 있는 세대로 제한하였다. 교육수준에 따라 제품을 사용하는 적극성, 즉 매뉴얼 사용 정도나 식품 보관 속성에 대한 지식 등이 실험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식품 보관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범위로 대졸자 이상을 선정하였다. 냉장고 사용 기간은 자신만의 사용 패턴이 형성되어야 하므로 최소한 1년 이상으로 제한하였다.

[표 2] 표준집단 선정 기준

표준집단 선정 기준 분류	표준집단 선정 상한선
연령대	30대-50대
교육 수준	대졸자 이상
냉장고 사용 기간	1년 이상
냉장고 사용 정도	1일 10회 이상

연구 진행에는 파일럿을 포함하여 한국인 30 명, 미국인 6 명이 참여하였다. 특히 미국인의 참여인원이 문화비교연구를 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인원이므로 인터뷰를 병행하여 정성적 데이터를 참고하였다.

3.3 설문지 설계

설문은 문화 성향 측정을 위한 설문과 냉장고 사용행태에 대한 설문을 동시에 실시하여 결과값을 비교 분석한다. 문화 성향에 대한 설문은 트롬페나르의 설문을 변형하였으며 냉장고 설문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은 냉장고 사용 행태의 factor를 근간으로 설계하였다. 보편주의의 측면은 원칙 및 질서를 얼마나 준수하는가에 대한 변수로서 냉장고 사용 행태에서 정리 원칙의 논리성과 그것을 준수하는 정도를 관련 지을 수 있다. 또한 냉장고 제품 특성상 한 가정 당 한대를 공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주사용자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개인주의 혹은 집단주의 성향과 관련을 지을 수 있다. 특징적인가 확산적인가에 대한 차원은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의 문제로서 냉장고 내에 식품을 정리할 때 빠른 접근을 우선시하는가와 넣고 꺼내는 작업이 다소 불편할지라도 심미적 요소나 정리원칙을 우선시 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볼 수 있다. 시간에 대한 차원은 일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가 혹은 동시적으로 진행하는가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조리나 식사 준비의 정도와 식품을 넣고 빼내는 과정 중 동시적인 행위정도과 관련 지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취적인가 귀속적인가에 대한 차원은 냉장고를 얼마나 능동적으로 사용하는가로 관련지을 수 있는데, 이는 냉장고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아티팩트나 사용자가 제어할 수 있는 구조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가로 측정할 수 있다. 트롬페나르의 중립적인가 감정적인가에 대한 문화 차원은 사용행태 보다는 심미적 선호를 측정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설문은 5 점 척도로 진행하였으며 1 점부터 5 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였다.

3.4 현장 관찰 및 인터뷰 설계

표본집단의 필수적 규모에 대하여 미비한 부분을 정성적 평가를 추가 활용하였으며 정량적 결과가 가지는 의미에 실제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현장에서는 냉장고 내부를 직접 관찰하여 각 현상에 대한 원인을 인터뷰하였다.

[표 2] 문화성향과 냉장고 사용행태 연관성

문화 성향	냉장고 사용행태 성향
보편주의	식품 정리 원칙의 명확성 및 준수 정도
개인주의	가족원과의 공유 정도
한정주의	식품 정리 구조의 깊이 및 넓이 정도
장기지향	행위의 연속성을 고려한 준비 정도
성취주의	내부 공간 활용의 능동성 정도

[표 3] 문화 변수에 따른 냉장고 사용행태 파악을 위한 설문

문화 변수	문화성향 측정 및 냉장고 사용행태 측정 설문
보편주의 대 정황주의 Universalism vs. Particularism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는 법률가를 부르기 전에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모임 시간이 초과되면 나는 비록 회의 내용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회의를 중단한다. 가능한 한 필요한 것 이상의 규칙은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 결론은 이론이나 논리적인(정량적) 데이터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Individualism vs. Collectivism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는 냉장고에 식품을 넣을 때 항상 넣는 위치에 보관한다. 나는 식품이 항상 있던 위치에 있지 않을 경우 마음이 편하지 않다. 나는 지금 넣으려는 식품이 있어야 할 공간에 다른 식품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 가까운 다른 곳에 둔다. 내가 꺼내려는 식품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못 찾는 경우가 있다.
특정적 대 확산적 Specific vs. Diffusi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일 나의 팀원 중 하나가 맡은 일을 훌륭히 하지 않았을 때, 나에게 책임이 있다. 나는 나 외에 다른 가족원이 냉장고 내부를 어질러 놓아서 불편한 적이 있다. 나는 다른 가족원이 냉장고에 식품을 기존 자리에 두지 않았을 때 마음이 불편하다.
동시적(장기지향) Time as sequence vs. synchroniz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망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게 낫다. 정리 구조의 깊이를 본다. 새로운 제품을 사용할 때, 먼저 매뉴얼을 꼭 읽어본다. 이론은 경험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우리는 현장으로 나갈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나는 냉장고 내 식품의 위치를 선정할 때 주로 경험(주위의 조언 / 제품설명서 / 아이콘)을 통해 결정한다. 관찰 및 인터뷰: 냉장고 내 식품의 위치의 구조가 원칙에 근거하여 깊은 구조로 정리되어 있는가, 혹은 산만하게 보여져도 오히려 빠른 접근을 고려하여 정리하는가
성취 대 귀속 Achieved vs. Ascribed stat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화는 본래 좋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에 어느 정도 현재와 다른 것들을 추구해야 한다. 나는 비록 내가 할 말이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이야기를 끝낼 때까지 기다린다. 나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기보다 한 번에 한 가지씩 일을 한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연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는 쌓여놓은 마늘이나, 썰은 파 등을 다량 보관해서 조리 시 필요한 만큼만 꺼내서 쓴다. 비상시를 위해 바로 행동해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보관한다. 다음 식사 때 먹을 고기를 미리 해동시키지 않아서 곤란한 적이 종종 있다. 나는 되도록이면 여러 개의 식품을 한꺼번에 꺼낸다. (단순한 습관에 의한 행동인지, 냉장고의 냉기 보존을 위한 의도적인 행위인지 interview를 통해 알아낸다.) 사람을 존경할 때 교육 정도나 가계의 배경이 영향을 미친다. 더 좋은 학교를 졸업하는 것은 더 좋은 미래를 약속한다. 나는 어떤 것도 미리 결정되어있지 않으며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냉장(동) 기능이 잘 이뤄지도록 식품 위치에 신경을 쓴다. 나는 냉장고 내의 선반 위치를 이동시켜서 원하는 style로 만든다. 나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요소(와인 걸이)는 냉장고 내에서 빼어버린다. 나는 냉장고 정리를 위해 적절한 크기 및 형태의 임의의 용기를 사용한다.

4. 결과분석

4.1 문화성향에 대한 분석

폰즈 트롬페나르의 문화변수를 기준으로 설문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점수 도출은 각 변수에 해당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의 평균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각 변수에 대해서 미국이 높은 점수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결과는 오히려 반대로 나타났다. 이는 실험 표본집단을 대졸자 이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통해 한국 문화의 변화 추이를 예상해볼 수 있으며, 따라서 냉장고 디자인은 물론 각 제품 디자인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표 3] 한국과 미국의 문화 성향 설문 결과

국가	보편주의	개인주의	한정주의	장기지향	성취지향
Korea	2.8	2.8	2.72	3.5	3.1
USA	2.25	2.6	2.9	2.8	3.4

보편주의에 있어서 오히려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개인주의, 혹은 집단주의에 대한 부분에서도 한국이 미국보다 개인주의 점수가 의외로 높게 측정되었다. 장기지향에 있어서도 한국이 미국보다 현저히 높은 점수를 기록하여 현재와 미래에 대해 깊은 연관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더불어 단일 시간 내에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미국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지향에 있어서는 한국보다 미국이 높은 성향을 보였지만, 한국도 의외로 높은 점수를 기록하여 과거에 비해 학업, 지연 등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졌음을 볼 수 있다.

4.2 냉장고 사용행태에 대한 분석

4.2.1 식품보관 패턴

* 식품 정리 원칙의 명확성 및 준수 정도

냉장고 내 식품 정리 원칙의 명확성 및 그에 대한 준수 정도 측면에서 한국은 평균적으로 2.8

미국은 2.25 라는 유사한 결과값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설문숫자에 의한 결과보다 실제 관찰에 의한 결과를 보면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다. 한국 주부들은 냉장고를 정리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수시로 가벼운 재정리를 하는 반면, 미국인은 정리하는데 크게 염두하지 않았다. 또한 한국 주부는 스스로 세운 정리 원칙을 되도록 준수하는 성향을 볼 수 있었지만, 미국은 큰 정리원칙 외에는 상황에 따라 식품의 보관 위치를 다르게 배치하였다.

* 내부 공간 활용의 능동성 정도

냉장고 내부 공간을 활용하는데 있어서도 역시 한국이 3.5, 미국이 3.8 라는 유사한 결과값으로 능동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또한 이에 대한 인터뷰 결과 한국인은 내부 선반을 옮기고 빼내는 작업이나 불필요한 선반 뚜껑을 그대로 방치하는 등으로 오히려 수동적인 자세를 보였으며 이에 반해 미국인은 자신의 용도에 맞게 선반 조절 등을 종종 활용하였다. 하지만 각 식품을 정리하기 위해 사용자 스스로 사용하는 아티팩트의 활용도에 있어서는 오히려 한국인 주부가 식품의 속성에 따라 융통성있게 용기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분은 한국인이 미국인보다 정리 원칙이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4.2.2 사용자의 행위 패턴

* 행위의 연속성을 고려한 준비 정도

계획된 사용자의 행위가 연속적으로 진행되도록 준비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결과는 한국과 미국이 모두 3.4 로 동일한 값을 얻었다. 이미 미국 가정에서는 식품을 대량 구매하여 냉동고 보관을 주로 이용하는 식의 식품관리가 일반화되어 있었으므로 3.4 라는 높은 점수가 충분히 짐작 가능한 답변이었지만, 금방 조리하여 식사를 준비하는 기존의 한국 식사 문화를 고려할 때 미국과 유사한 답변이 나온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였다. 또한 인터뷰 결과 한국 주부들의 냉동고에 대한 필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냉장고 내상 디자인 시 가정 내 식품 준비에 따르는 행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다.

* 동시적 행위에 대한 정도

식품을 넣고 꺼내는 작업에서 한정된 시간 내에 작업을 동시적으로 하는가와 연속적으로 하는가에 대한 정도를 측정하였다. 결과값은 한국과 미국이 3.5 로 동일하게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 모두 다음 사용을 고려하여 현재 사용을 계획하는 것으로 보였다.

4.2.3 가족원간의 공동 사용 패턴

* 가족원과의 공유 정도

가족원과의 공유 정도는 대부분의 가정이 주부가 주 사용자이며 그 외에는 부 사용자로서 매우 한정된 부분만 공유하는 경향이 있다. 젊은 부부의 가정일 경우 남편의 사용 정도가 높은 값을 가졌다. 이러한 유사한 수준의 이용도를 가진 사용자가 두 명 이상 있을 때 발생하는 불편함이 몇몇 미국인 주부에게서 발견되었다. 이에 대하여는 발견된 불편 사항이 소수라는 점에서 개인주의나 집단주의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냉장고 내상을 디자인하는데 가족원들의 개별적 사용을 고려한 컨셉을 제안하여 사용의 편의성을 제공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종합 결론

개인적인 실험으로 진행된 문화 연구인 만큼 본 연구의 결과를 한국과 미국의 일반적인 경우로 확장시킬 수는 없으나, 채택된 표준집단의 범위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 보편주의적 성향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보편주의적 문화 성향을 띄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냉장고 사용 행태에 있어서도 한국 주부가 미국 주부보다 정리의 원칙 명확하고 그에 대한 준수 정도가 더 높았다.

* 한정주의적 성향

한정주의의 차원으로 측정한 문화 성향에서는 미국이 한국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오히려 한국이 미국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한정주의는 인터페이스 상에서 깊은 구조 혹은 얇은 구조 등과 연관되

는 개념으로, 냉장고에서는 식품 정리의 구조를 사용에 대한 접근을 고려하여 얇은 구조로 배치해두는 성향과 접근보다는 명확한 분리 보관 등의 정리에 우선권을 두는 성향으로 풀어볼 수 있다. 이는 정성적 평가에 의해서 더 명확히 드러난 바로 미국은 정리에 대한 큰 구획 외에는 손쉬운 접근을 기준으로 식품을 배치하였으나 한국은 서랍이나 뚜껑 등을 이용하여 깊은 구조를 형성하였다. 한정주의에 대하여 문화 성향과 냉장고 사용행태가 반대 결과가 나타난 것은 미국의 실리주의적 입장과 한국의 보편주의적 성향이 한정주의의 노출에 대한 외부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추후에 냉장고 사용행태에 대한 추가적 질문이나 조사가 덧붙여져야 더 명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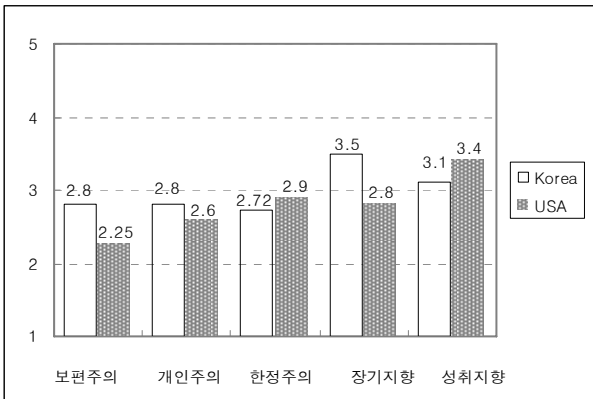
* 장기지향적 성향

장기지향에 대한 문화 성향은 미국이 한국보다 현저히 높게 측정되었으나 냉장고 사용에 대하여는 한국과 미국이 동일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특정 문화 변수가 한가지 영역에 크게 작용하는 현상이 있다는 사실로 유추할 수 있다. 미국은 문화 성향과 냉장고 사용행태 성향에 있어서 3.5 와 3.4 로 유사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한국은 2.8, 3.4 로 특별히 냉장고 사용에 장기지향적 성향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는 엔겔지수와 연결지어 관계성을 설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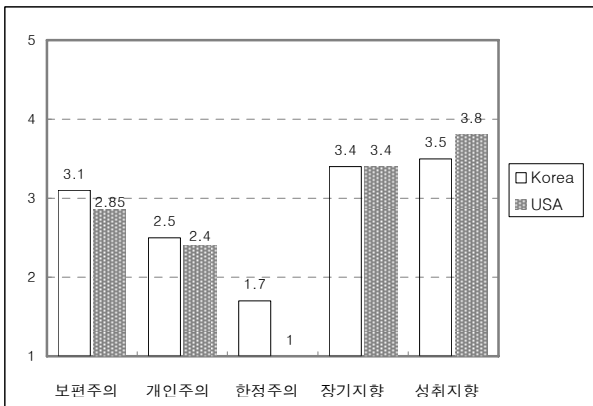
* 성취지향적 성향

성취지향적 성향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 모두 높은 결과값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냉장고 내상을 디자인 시에 사용자가 자신의 context 에 적절하게 공간을 재구성할 있도록 주도권 부여 정도를 높여주는 컨셉을 제안할 수 있다.

[그래프 1] 한국과 미국의 문화 성향



[그래프 2] 한국과 미국의 냉장고 사용 형태 성향



6.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냉장고 사용 행태에 대하여 문화적 영향이 있음을 밝혀 추후 냉장고 내상 디자인 시에 문화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개인 연구로써 적은 규모로 진행되어 한국과 미국의 일반적인 경우로 확장시키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따라서 추후에는 각 문화권별로 많은 피실험자수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수 년 전 문화학자들의 실험과 반대의 결과가 도출되고, 냉장고 사용 패턴에 의해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문화에 대한 연구 주기가 더욱 짧아져야 함을 나타낸다. 또한 동일 문화권 내에서도 표준집단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문화적 영향 위에 사용자 세그멘테이션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제품을 디자인하는데 실제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연

구가 추후에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7. 참고 문헌

- Fons Trompenars, "Riding the Waves of Culture: Understanding Cultural Diversity", Nicholas Brealey, 1993
- Kun-Pyo Lee, "Culture and Its Effect on Human Interaction with Design – with emphasis on Cross-Cultural Perspectives between Korea and Japan", Doctor of Philosophy at the University of Tsukuba Institute of Art and Design, 2001
- 김정하, 문화적 차이에 따른 웹사이트 구조 디자인의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2002